

9-20-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 3:1-5;4:2
말씀 제목: 주의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한 현 세상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편지를 목회자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2-5)

이로 인하여 그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산 자들, 즉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늘로 옮겨지게 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대 환란에 넘겨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도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현 세상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실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산 자들에게 일한 만큼 통치권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통치권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계 5:9-10)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딤후 4:2-3)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며 돈과 자신만을 사랑하는 때이므로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심판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극도로 대적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